

오순절 후 열네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9월 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1 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새 80)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6 번 이사야 (Isaiah) 40 장(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어(Hebrews) 11:23-29	이기울 집사
설 교 Sermon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83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 33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더 크다고 여기며,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믿음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기초한 바른 영적 분별력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신실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4:1, 롬 14:2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글개역 히11:26)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NIV Hebrew 11:2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6 (주일)	9/7 (월)	9/8 (화)	9/9 (수)	9/10 (목)	9/11 (금)	9/12 (토)
본문	삼상31	삼하1	삼하2	삼하3	삼하4,5	삼하6	삼하7
	고전11	고전12	고전13	고전14	고전15	고전16	고후1
	겔9	겔10	겔11	겔12	겔13	겔14	겔15
	시48	시49	시50	시51	시52-54	시55	시56,57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9/9 오후7:30)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민 25:1-13)
토요 새벽기도회 (9/12 오전6:30)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시 7:1-17)

지난 주일(8/30) 말씀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하였으며**”(히 11:20-22)

오늘 본문(히11:20-22)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일명) 'Patriarch' 족장들로 불렸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들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들이 이룬 대단한 업적이나 삶의 성취를, 본문은 믿음의 이야기로 소개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삶을 마감하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를, 믿음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들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첫째, 이삭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믿음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히11:20), 2)둘째, 야곱을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며(히11:21), 3)셋째, 요셉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히11:22).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전7:14)는 말씀처럼, 지금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곤고한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가 어떠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할 수 있으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메/모